

인도 : 이영제 목사

목	도	다	같	이
기	원	인	도	자
찬	송 190장	다	같	이
교	독 31번	다	같	이
신	앙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188장	다	같	이
기	도	이	창	걸
성	경 사54:4-10	다	같	이
특	송			
설	교 예수님은 누구 신가?	이	영	제
		(11. 나의 산 돌이신 예수님)			
찬	송 394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봉	헌 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다	같	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축	도	인	도	자

지난 설교제목 : 길, 주, 생명, 진리, 부활, 생명의 떡, 흠과 신로, 왕, 돌는 해, 신랑

지난주 등록 교우 : 정신호 형제



24시간 릴레이 중보 기도자

매일1시간 : 오전6시(차영숙) / 오후1시(이영제)
6시(김효선) 유동(이창걸)

주안교회 5대 실천강령

- ◇ 24시간 쉬지않는 릴레이 기도로 성도 자신이 성령받고 교우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한다.
- ◇ 본 교우는 모두 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고 예배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 ◇ 모든 교회재정(십일조, 감사, 선교헌금 등)의 지출은 선교비를 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로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여 오는 세대에게 복음과 선교정신을 물려준다.
- ◇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운영한다.

주양교회 24시간 릴레이 기도제목

○ 주양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이 하루속히 완성되도록
교회의 파송선교사(김형주, 정00)님을 위해서
중국의 00교회와 리00전도사님을 위해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피아노 반주자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양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의 축복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 이영제 목사님을 위한 기도제목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넘치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해서
중소교회 목회자 세미나(만나교회) 강의(9월 15일)를 위해서

○ KCM을 위한 기도제목

인터넷의 단비편지가 잘 준비되며, 전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KCM 파송 및 협력선교사님을 위해서
멀티미디어팀이 잘 운영되도록
세계선교정보연구원 모임이 잘 활성화 되도록

○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세계의 한국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사단의 방해가 물러가며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아직까지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국내의 선교단체들을 위하여

○ 민족을 위한 기도제목

민족 회개와 종교혼합주의, 미신, 무속 타파를 위해서
영적분별 능력과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한국경제회복을 위해서와 실업자, 근로자 문제를 위해서
반부격차 해소와 경제윤리 회복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식량난과 핵포기를 위해서

○ 가정을 위한 기도제목

부부관계가 회복되며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도록
가정폭력이 사라지고 가출과 탈선이 사라지도록



주일오후 2시 예배 / 히브리서 주석강해 설교

이영제목사가 직접 연구한 주석자료를 기초로 강해설교 합니다.

9:23-28 완전한 제사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 더 좋은 제물” 은 예수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구약의 모형적인 방법으로 “ 하늘의 것들” 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이 필요함을 말한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옛 언약의 지상의 성소가 하늘 성소와 비교되었다. 지상 성소는 참 성소의 그림자에 불과했고 이곳에 대제사장은 일년에 한번씩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들어갔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로 보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 오직” ἄλλά(알라) “ 그러나, 다른 것들” 로 ‘ 다른 방법’ 으로 하늘에 가셨다.

25-26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라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번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간 것(레16장)과 같이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한다면 일년에 한번씩 속죄제물이 피를 흘려 죽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제사는 최종적인 것으로 드러졌다. “ 세상 끝”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약시대의 상황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 때가 “ 세상 끝” 이 되는 것이다.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리스도 역시 한번은 죽으셔야 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 정하신” ἀπόκειται(아포케이마이)은 직설법 현재형으로 죽음과 심판은 누구도 피해서 갈 수 없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정리한다. 사53:12의 예언의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그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죽으시기 전에도 이미 있었다(막 2:10, 눅5:24). 하지만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히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벧전2:24).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마1:21, 요12:47).



이영재 목사
주암교회 담임
컴퓨터선교회 대표

스펄전씨 제게 성령께서 설교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스펄전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저녁예배가 끝난 뒤 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스펄전 씨, 성령이 내게 다음 목요일에 이 예배당에서 내가 설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것 참 재미있는 일이군요.

그런데 그 성령이 제게는 말씀하시지 않다니 이상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목요일에 그 예배당에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마치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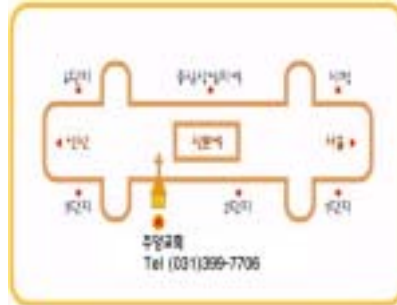
주암교회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김형주 선교사 / 필리핀 정형구 선교사
베트남 정00 선생 / 중국 리00 전도사 / 인도 초띠옥이 자매
파키스탄 정00 선교사 / 미국 김능수 전도사

예배시간 안내

주일 오전 11:00 /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 찬양, 성경강해

새벽 5:00 / 새벽예배
수요 오후 7:30 / 삼일예배(주제, 성경공부)
금요 오후 9:00 / 심야예배(찬양, 기도집회)





제목 : 예수님은 누구 신가?

(10. 나의 신랑 예수님) / 본문 : 사54:4-10

우리는 결혼하는 것을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말합니다. 영어의 ‘wed(결혼하다)’는 우리와 달리 ‘약속한다, 서약한다’의 뜻입니다. 남녀간에 부부가 되는 것을 약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로 결혼반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혼은 단순한 남녀가 만나서 한평생 살기로 약속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시집’이란 남편만이 아니라 ‘남편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집간다’는 것은 한 남자와 살려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시집)과 살려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장가간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가’는 ‘장인 장모의 집(처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구려 때는 남자가 아내를 얻으려면 먼저 처가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낳게 되면 비로소 색시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우리의 결혼이란 1대 1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한 집안과 자신이 들어가 결합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구약본문에서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5절)고 하십니다. 그리고 엡5: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남편 되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지나치게 자신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집안의 연인과 사랑을 하다 결혼 때가 되어 박대를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사회에서 이 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가족과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갈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인도에는 아직도 카스트(계급) 사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남자 집안의 신분이 낮은 하층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브라만 계급의 상류층 여자였습니다. 여자 집안 쪽에서 당연히 반대를 하고 남자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겠지요? 그리고 그 남자는 얼마 있다가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이와 같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다 죽음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사 54:4)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땅에 탄생하실 때부터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신부로 부르십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난주(2003.9.7) 설교요약

대한예수교장로회

주 앙 교 회

JOOANG PRESBYTERIAN CHURCH

표어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선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
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담임목사 이 영 제

Pastor Lee, Young Jae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3-3(제일프라자 5층 본당, 사무실 4층)

교 회 : (031)399-7706 선교회(KCM) : (031)399-7705

목사관 : (031)398-7702 핸드폰 018-213-7702

Homepage : <http://kcm.co.kr> Email : webmaster@kcm.co.kr